

방학때 다닐만한 다도교실은?



우리 아이 의젓해졌네

생활 예절 익히는 어린이 다도교실 인기
 기다림·여유 배울 수 있어 인성교육에 효과



“차잎을 찻숟가락으로 떠서 다관에 넣습니다. 다관에 물을 따르고 뚜껑을 덮은 후 두 손을 무릎에 모으고 잠시 기다리세요.” 한 시라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산만한 아이들. 그러나 다구와 차가 가지런히 놓인 찻상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소곳해진다. 목마를 때면 발컹발컹 마시던 음료수와는 달리, 찻잔을 정돈하고 차가 우리나라를 지켜보면서 ‘기다림’과 ‘여유’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차기 때문이다.

다도(茶道)를 통해 생활 예절을 익히게 하는 어린이 다도교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다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 단체나 지역 다회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학을 맞은 자녀들이 다도를 배울 수 있는 강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오랜 교육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강좌를 여는 차 문화 단체들의 어린이 다도교실을 들 수 있다.

가천문화재단과 한국차문화협회는 방학 때마다 어린이들에게 차 문화와 전통예절을 가르치는 어린이 예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 강사진이 다도뿐 아니라 절하기와 탑춤, 전통놀이 등을 가르친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11시부터 14시까지 인천시연수구 가천인력개발원에서 열리며 7세 미만의 어린이가 참가 가능하다. 참가비는 7천원. (032)460-3460-2

명원문화재단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생활예절 및 전통예절과 다례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명원 다례교육을 하고 있다. 전통다례교실과 어린이 예절교실,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현궁과 삼정각에서 수시로 개최한다. (02)730-7191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가호박물관(www.gahomuseum.org)은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12시까지 다도교실을 연다. 전라남도 나주 동원사에서 직접 가져온 야생차를 사용하며, 다도교실 후 2백50여 점의 민화와 7백50여 점의 부적을 포함한 1천5백여 점의 유물을 구경할 수도 있다. 참가비 3만원. (02)741-0466

차인들이 많기로 유명한 부산에서는 각 지역 차회가 운영하는 어린이 다도교실을 비롯해 부산여자대학 어린이도서관의 ‘엄

마 아빠와 함께 배우는 다도교실’, 부산시 여성문화회관(wcc.metro.busan.kr)의 ‘전통예절과 차예절 교실’ 등이 눈에 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배우는 다도교실’은 부산여대 다도관에서 진행되며 5세 이상의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다도를 배울 수 있다. (051)850-3113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의 전통예절교실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과 차 예절, 다도기초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8월 8~12일, 17~22일 동안 매주 월·수·금 14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강료는 3,750원 (051)320-8380

지리산 평화동에서는 다도교육과 예절교

실을 함께 운영한다. 유아에서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1주일간 다도와 서예와 판소리 등 전통예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예절캠프’는 매년 참가자들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 프로그램이다.

김봉곤 예절캠프(www.ichunghak.com)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5박 6일 코스를 8월 22일까지 운영하며, 청학동 옛날서당(www.chungghadong.net)은 9월 3일까지 여류명예 예절교육을 마련한다. (02)775-0981, (055)884-1127

가족이 함께 다도를 배우고 싶다면 하동 삼신늬작마을(www.samsinivil.org)의 체험 프로그램을 권한다. 삼신늬작마을에서는 1박2일 동안 찻잎 따기와 차 만들기, 다도수업 등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일코스와 선택형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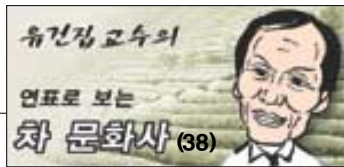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우리 아이, 방학을 맞은 자녀에게 다도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어떤가? 차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생활 예절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사진은 제주 약천사의 어린이 다도교실 수업 모습. 현대불교기자사진

이 밖에도 인천화성교육문화회관과 경기도 고양시 고양에집원, 경주 신라문화진흥원, 충북 청원군 강내농협 복지센터 등에서 어린이 다도교실과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충북 강내농협 지역문화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을 위해 생활예절과 다도체험교실, 어린이글짓기 교실, 1,000여점의 도서를 갖춘 열린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다도교실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제주 약천사는 7월 28~30일 한문 및 예절교실을 진행한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5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3만원. (064)738-5000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조선시대 19

임진왜란 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상흔이 가라앉고 차 생산이 차츰 규모에 올라 국가의 의례나 개인의 제의에는 종전과 같이 차를 쓰게 됐다. 특히 일본과는 대마도를 통해서 교류가 잦아져서 차도구가 많이 거래됐다. 그리고 우리 차의 품질이 좋아 외국인도 그 향미(香味)를 높게 평가했다. 이 시기에 바로 찻지 차를 금에 보냈다. 또 다시 병자호란이 일어나 북쪽은 전화를 입었으나 남쪽 차 생산지는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중국은 계속 흥년이 들어 차의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수출에도 지장을 주었으나 국가적으로 차 생산에 힘을 기울였다.

고 임금이 그 품질이 상품인데 왜 상품화해서 나라살림에 보태지 않느냐고 말했다.

⑤ 승정전에서 조사(詔使)를 맞은 잔치와 다례를 두 번이나 거행했다.

⑥ ‘삭일에 술과 과일을 쓰고 망일에는 차를 쓴다’는 기록이 있다.

⑦ 왜사(倭使) 현방 등을 만송원에 청하고 유방원 도서를 허락했다.

⑧ 월저대사(1638-1715): <화엄경> 국역을 완성했고 다시가 전한다.

⑨ 중국 사신이 올 때 관소(館所)인 용만관에서 원접사와 영위사가 사신을 맞는 다례를 행했다.

⑩ 왕상진이 쓴 책으로 ‘다보소서(茶譜小序)’가 들어있다.

조선-병자호란 발생, 남쪽 차 생산지는 유지 일본-외국과 교류 확대, 다원에 방풍림 조성

일본의 차는 국내적으로 널리 자리 잡고, 한편 외국과의 교류에도 눈을 돌렸다. 우리가 도가노를 대신해 명성을 얻고 진경(津輕) 등의 다원에는 방풍림을 조성했다.

① 심동구(1594~1660): 다시(茶譜) 몇 편이 <청봉잡>에 전한다.

② 대마도주 평의지는 종벽산(鐘碧山)에 원당을 짓고 만송원으로 부르며 조선에 성심향화(誠心香火)를 다하겠다는 선척을 청하므로 조정에서 허락했다.

③ 유형원(1622~1673): <반계수록>에서 다색(茶色)의 정리와 궁궐에 바치는 차의 양에 관해 썼다.

④ 양호는 명나라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남원 토산차를 마셔보

⑪ 청대 포승음(鮑承蔭)이 지은 전 7권의 책.

⑫ 이어(1611~1680): 청대 희곡 작가이자 차인이다.

두준(1611~1687): 호는 다촌(茶村). 하루라도 차가 없으면 안됐고, 다구(茶缶)의 일화도 남겼다.

모침(1611~1693): <가다류소>를 썼다.

쑤양공(1612~1672): 민차(閩茶)를 즐겨 ‘민소기(閩小記)’를 남겼다.

고염무(1613~1682): ‘다(茶)’자의 생상과 동약을 발굴하여 다사(茶史)에 공헌했다.

⑬ 쓰가루의 차밭에 방풍림을 조성했다.

⑭ 일치를 끊이는 것엔 관한 기록이 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국	중국	일본
@ 심동구의 활동 ① 1622 재정고갈로 전세(田稅) 공물(貢物) 납입 독촉 만송원승사(萬松院送使) ② 유형원의 출생 ③ @ 양호(楊樞)의 진언 ④ 1625 조사(詔使) 다례 ⑤ 1629 남지(南地) 회도(回島) ⑥ 1832 가례언해(家禮諺解) ⑦ 청사(淸使)에 행다례 1636 유방원 승사 ⑧ 병자호란 1638 천지차(天地茶) 작설차(雀舌茶)를 후금에 보냄 월저(月渚) 대사 ⑨ @ 몽만연향 ⑩	1621 <군방보(群芳譜)> ⑪ @ 순치연간 조선 사신들에게 차공급 민색(贈進) ⑫ 1625 <농정전서(農政全書)>(서광계) 1627 <남국일록(南國日錄)>(소사위) 1630 메화초당필담(梅花草堂筆談) @ <다마정요(茶馬政要)> ⑬ 1636 청의 개국 프랑스의 차 수입 @ 이어(李漁), 두준(杜濬), 모침(鮑勳), 주양공(周亮工), 고염무(顧炎武) ⑭	1624 차밭에 방풍림 조성 ⑮ @ 전다예정(煎茶禮誌) ⑯ 1632 우치체다사의 행사 1537 네덜란드에서 일분차 수입

시조시장경 時調詩藏經

한국문학사상 최초로 불경을 시조시화한
 경암 김준현 스님

시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는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수행과정, 가르침 등을 함축적이면서도 운율이 살아 있는 시조시로 되살려내 누구나 쉽게 읽고 그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했다.

부처님이 떠나시고 계시지 아니해도 보살이 간생(間生)해서 불법을 세롭게 흥포한다는 말씀이 경전에 있다. 이것은 보살의 시대적인 원력을 말씀하신 것이다. 경암스님은 이 시대의 한 인간, 한 사문(沙門)으로서 보살의 원력으로 「시조시장경」을 집필한 것이다.

- 이두스님(관음사조설·시인)

※ 전국 유명서점 판매 중

경암스님
 월하(月可)스님을 은사로, 태허(太虛)스님을 계사로 득도한 후 고산사 교감(住持) 보덕사 묘각사 등에서 수행, 강진했다. 1977년 법화유지원을 설립했으며 현재까지 17년간 불일종 총무원장으로 중무에 임하고 있다.

■신국판 | 양장본 | 340쪽 | 값 20,000

에서이론 서울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 구입문의 : 02)2004-8220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테형강판
 슬라브, 사철,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포공사)

서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9697-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목조 건축물

목조 건축물의 문제점
 특히 곰팡이, 해충, 가루나무좀벌레, 흰개미 목재부식 이 모든것을 해결합니다.
 저희 동화특수산업(주)은 목조 건축물을 과학적으로 보존에 임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

- 환개미 방제 시스템
- 가루나무, 좀벌레살충
- 목재, 석재, 기와발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목재전용(부식)방부제
- 방염제

목재 복원 시스템 (특허번호 특허 제 0476325호)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주)
 본사/공장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27-1
 TEL. 031)451-6232 (대) FAX. 031)451-6238
 HP. 011-747-2111